**2023.06.04#062 사사기 II, 17-21장, 역사교육 부재의 결과 !!**

**사사시대가 도래한 원인:** \_\_\_\_\_\_순종, \_\_\_\_\_\_교육

**결과:** 삿2:11-12 여호와께 \_\_\_을 돌림 🡪 2:13-14 이스라엘에게 \_\_\_\_\_하심

**사사기의 연대별 구성**

1-2장 대충 마무리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

17:21장 사명을 잃은 삶의 현실

**17-21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의 공통점:**

\_\_\_\_\_\_\_ 하나님의 \_\_\_을 알리는 \_\_\_\_\_\_을 맡은 자들!!

그 시대의 영적 온도는 \_\_\_\_\_\_와 \_\_\_\_\_\_들(사명자들)의 삶의 \_\_\_\_\_\_을 보면 알 수 있다.

그 시대 교회 속에서 목사들, 리더들이 성경에서 주신 \_\_\_\_\_에 \_\_\_\_\_하고 있는가… 아니면 \_\_\_\_\_ 일에 집중하는가가 그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 주는 \_\_\_\_\_\_\_\_\_\_다!!!

오늘 이 시대 속에서 목사(리더)들의 사는 삶의 \_\_\_\_\_\_\_은 어디이며…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?

**[17-18장]**

종교적으로는 열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\_\_\_\_\_ 분이신지를 \_\_\_\_\_ 못하고 자기들을 위한 \_\_\_\_\_\_\_을 만드는 시대!!

*17: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\_\_\_\_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\_\_\_\_\_\_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*

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\_\_\_\_\_\_\_\_을 왕으로 모시기를 \_\_\_\_\_\_했다!

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\_\_\_\_\_를 소홀히 여겨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\_\_\_\_\_하니까 자기 \_\_\_\_\_\_\_과 \_\_\_\_\_\_을 따라 살게 된 것이다!!

말씀이 주시는 사명과 목표가 힘들다고 느끼니까 \_\_\_\_\_\_을 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\_\_\_\_\_하고 \_\_\_\_\_\_\_과 \_\_\_\_\_\_\_를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…

목사든, 성도든 \_\_\_\_\_을 잃으면…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자리로 \_\_\_\_\_\_\_\_ 떠나고 움직이게 된다.

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고 당장 부딪힌 일이 힘들다고 목표와 사명을 바꾸지 말고 나의 \_\_\_\_\_\_을 넓히는 \_\_\_\_\_\_가 되게 하라!!!

**[19-21장]**

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 교육의 \_\_\_\_\_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한 말씀들을 교육하지 \_\_\_\_\_ 결과들은 \_\_\_\_\_적으로 죽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 \_\_\_\_\_\_ 나타나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.

이야기를 하나하나 끊어보면 별 이상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처리한 것처럼 보인다!! 그러나..

이야기의 \_\_\_\_\_\_를 잘 파악하고 읽으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\_\_\_\_\_한 삶이 그 시대에 \_\_\_\_\_한 듯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!!

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걸었던 역사를 \_\_\_\_\_ 것,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\_\_\_\_\_\_히 여기고 \_\_\_\_\_ 것에서 시작된다.

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 \_\_\_\_\_를 \_\_\_\_\_적인 흐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배우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\_\_\_\_\_\_를 모르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.

말씀을 \_\_\_\_\_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\_\_\_\_\_이 강해지고, 그러다보면 자기 생각이 \_\_\_\_\_\_가 되고 만다!!

나는 어떤 하나님, 어떤 목사를 원하는가?

하나님의 말씀을 \_\_\_\_\_히 하기에 점차 잊어가다가 나중에는 \_\_\_\_\_을 전혀 모르고 모든 \_\_\_\_\_\_이 개인의 욕심과 욕구가 될 때… \_\_\_\_\_\_주의(\_\_\_\_\_\_주의)에 빠지게 된다!!

**한주간의 거룩한 삶을 돕는 질문들...**

1.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는 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? 17장에서 미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? 18장의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명을 맡은 지파들의 현실은 어떠해 보이는가?(삿1장참고)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17-18장의 등장인물들(미가, 레위지파, 단지파)과 흡사한 일들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자. 이런 시대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?

2. 19-21장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라. 이 사건이 말해주는 핵심은 무엇인가? 내가 생각하는 목사(리더)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? 그 생각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가?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(성경역사)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? 나의 전체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나누어보자.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 감격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자.

3. 나의 삶은 사명중심의 삶인가, 생존과 번영중심의 삶인가? 왜 이런 삶의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? 나는 지금 하루 하루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? 나의 현재 신앙생활을 볼 때 앞으로 5년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가?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뒤, 10년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알아갈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.

4.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 볼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?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꼭 지켜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?

5.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? 그로 인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?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?

6. TO Do List